

성인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비교 연구

정 선 희* · 정 경 희**

용인대학교 · 용인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용언의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용언 활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지적장애 2-3급의 성인지적장애인 10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비지적장애인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용언 활용 정확도 검사는 10개 용언, 5개의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용언과 어미 결합을 정확히 활용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용언활용 정확도 총점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용언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규칙과 불규칙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했다. 집단과 규칙성 여부 간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보다 불규칙 활용 정확도에서 상대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용언 활용 정확도를 어미별로 살펴 본 결과 연결 어미에서는 '니까'와, '면'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오류 유형별 빈도와 오류율의 순서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성인지적장애인이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에 비해서 용언 활용의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불규칙 용언 활용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용언 활용에서 규칙적인 것은 어느 정도 습득도 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렵고 실수를 하므로 언어중재 시 불규칙 용언 활용의 측면에 대한 지속적 주의관찰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제어 : 성인지적장애인, 용언활용, 어미, 규칙성, 불규칙성

* 제 1저자, 용인대학교 언어재활학과

** 교신저자, 용인대학교 언어재활학과 교수 (1012jkh@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며,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간다. 인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 문법, 내용 구성이 더욱 세련되어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성인에게 있어 언어는 단순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넘어 자신이 속한 직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언어에 문제가 생긴 성인의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국어는 조사, 어미의 문법형태소가 발달한 교착어이다. 문법형태소 중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다음 말과 연결해 주거나,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을 표시한다(남기심, 고영근, 1993). 어미의 사용으로 문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연결어미, 전성어미를 사용한 복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복문의 발달은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사고 작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권도하, 정분선, 1999). 한국어의 경우 복문의 발달은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등 어미의 발달과 함께 나타내는데,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논리적으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미의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의 양상이 부호화된 가장 전형적인 결과가 문법 현상이라 한다면(김준희, 2008) 용언 활용 능력은 형태, 구문적 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발화의 확장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논리적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어미발달 및 특성에 관한 연구는 연령별 어미 발달 특성 연구(김귀숙, 2002; 서희선·이승환, 1999)와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 아동들의 어미 사용 특성을 일반 아동과 비교한 연구(김세나, 2012; 김연아, 2002)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과제들은 대부분 문맥 속에서 어미 사용의 적절성을 보거나 두 문장을 주고 어미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복문을 산출하는가를 보았다. 이는 특정 어미의 의미를 이해하고 두 문장 사이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의미적 측면에서의 어미 형태소의 사용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그런데 의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어미의 정확한 사용 능력은 볼 수 있지만 특정 용언에서 어미가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되는지를 보여 주지는 못하는 제한점이 있어서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 요소인 활용의 문법체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활용

규칙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주어진 음운 환경에 따라 바꾸어야 하는 규칙처리의 형태적 측면에서 사용의 적절성은 파악하기는 힘들다. 김혜영(2008)의 연구와 최은숙(2005)의 연구는 활용 문법 체계의 습득은 2달말에서 3달말 단계부터 출현하여 6세가 되어서야 형태적 정확도 면에서 안정되므로 이를 익히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지적장애아동들은 형태소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형태론, 구문론적 특성에서 다소 지체되어 있을 뿐,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Bartolucci, Pierce, Steiner, 1980; Cantwell, Baker, Rutter, 1987; Owens, 2002). 그러나 지적장애아동은 형태소 사용과 같은 특정 행동에서 일반아동과는 다른 발달적 특징을 보이며, 특히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김세나, 2012). 어미 활용에서도 규칙, 불규칙 활용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불규칙 활용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문법형태소 활용에서 어미의 실수가 많다고 한다(김혜영, 2008; 김수영, 2002). 언어장애아동은 용언 활용의 문법체계를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용언을 활용해서 쓰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용언과 어미의 습득이 의미적 측면에서의 안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의 안정될 필요가 있다(김혜영, 2008).

이러한 정확한 활용문법체계의 사용에 대한 중재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연령이 증가해도 개선되지 않고 성인기에서도 이어져 의사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 성인지적장애인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 사회 참여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성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지적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장애인들의 언어 관련 연구 자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어미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김세나(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아동이 경도지적장애아동보다 연결어미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며, 나열, 대립, 이유/원인, 목적, 동시의 5가지 의미관계 유형에 따른 산출과제 모두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김연아(2002)에 의하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전반적인 어미 사용 능력이 낮았다. 의미관계별로 보면 “동시”, “이유/원인”, “대립”, “조건”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사용능력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하여 낮은 수행을 보였다. 김수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연결어미의 사용빈도수는 단순언어

장애 아동(855회)과 언어발달지체아동(789회)이 정상아동(1,197회)보다 적었다. 또한 발화수에 대한 사용빈도 백분율도 단순언어장애(94%)와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84%)이 정상아동(126%)보다 낮았다. 한편 유형수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연결어미의 유형수(단순 16개, 경계선 16개, 정상 20개)는 조금 적었다. 기존의 일반아동이나 다른 장애군의 어미연구는 연결어미의 의미관계를 범주화해서 의미상 적절하게 사용했는가와 사용빈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미사용에 있어 의미적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특정 용언과의 결합어미가 특정 용언과 활용을 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형태적 정확성이 확보되었을 때 보다 분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어미 연구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언 활용에서 어미 형태소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나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학령기가 되어도 부적절한 문법구조의 사용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의 어려움까지 경험하게 된다. 또한 문법형태소 사용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학교교육에서 이에 대한 교수-학습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김세나, 2012). 이러한 문법체계 습득의 제한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미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어미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구문발달이 끝난 성인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한 구문 산출의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유지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 지적장애인의 이러한 문법체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습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언 활용의 문법체계에 성인지적장애인이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를 활용의 형식적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휘 능력이 비슷한 아동의 활용 정확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문법체계 학습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정확도와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 활용 오류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간 용언 활용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간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는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간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는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간 활용 오류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적장애 2-3급 진단을 받은 성인지적장애인 10명, 그리고 이들과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중 수용 어휘능력으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적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1)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2)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지적장애 2, 3급으로 진단받았고, (3) REVT로 객관적인 언어능력을 측정된 결과 수용어휘 능력 10%ile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가 없다고 부모에 의해 보고된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비지적장애인의 경우는 (1)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2)부모나 교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고되었으며 (3) 성인 지적장애인과 1:1 매칭시켰을 때 성인 지적장애인의 REVT 수용언어 원점수 ± 3 점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4) REVT 수용언어 원점수가 또래규준에 비교할 때 10%ile 이상인 경우 (5)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가 없다고 부모에 의해 보고된 경우로 선정하였다. (6)6세에 이르면 특정 활용형을 꼭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롭게 사용한다는 최은아(2004)의 연구결과에 의거 생활연령이 6세 이상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대응집단 간 통계를 검정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방법으로 검정한 결과 t 검정을 위한 등분산가정을 충족하였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언어, REVT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N	평균 (month)	SD	t
생활연령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49.70	59.335	12.659*
	언어연령일치집단	10	97.90	20.878	
REVT 수용어휘	성인지적장애집단	10	110.00	32.738	-.07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111.00	31.116	

* $p < .05$

2. 연구절차

1) 검사도구

(1) 선별검사 도구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외,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인 REVT 검사는 수용 및 표현 어휘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표현 어휘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어휘 발달 연령을 제공하며 생활연령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 어휘 발달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제공하여 같은 생활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휘 발달수준을 제시한다.

(2) 검사도구의 제작

연구에 사용된 용언의 활용은 최은숙(2005)의 용언 활용 과제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용언의 목록은 3세에서 8세 아동의 내용어 어휘발달 연구(최은아, 2004)에서 선정하였다. 4세 아동이 습득할 수 있는 용언(동사, 형용사) 중 검사 대상자에게 사용 빈도가 높아 익숙한 것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그림 자료의 상황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자료는 복문지도용 언어치료 그림자료(상지언어발달장애연구회, 2002)에서 선정하였고, A5 크기로 용언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만 부분 채색을 하였고, 각 용언별로 1장씩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용언을 선정하기 위해 3세에서 8세 아동의 내용어 어휘발달 연구(최은숙, 2005)에서 4세까지 아동이 습득할 수 있는 용언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용언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용언을 동사 중심으로만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언은 동사, 형용사 모두를 의미하며, 이 시기 아동들에게 형용사도 용언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형용사도 포함해서 선정하였다. 단, 형용사보다는 동사의 출현 빈도와 사용이 많음을

감안하여 동사의 비율을 더 높게 선정하였다. 따라서 검사 용언은 단일어의 동사, 형용사 중 사용 빈도수가 높아 검사 대상자에게 익숙한 것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를 활용 형태에 따라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으로 분류하였는데, 연구 대상자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모호한 ‘러’ 불규칙용언, ‘거라, 너라’ 불규칙용언, ‘우’ 불규칙용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규칙용언은 받침 없는 규칙용언(동사1, 형용사1), 받침있는 규칙용언(동사1, 형용사1) 4개와 불규칙용언은 ㅅ불규칙, ㄷ불규칙, ㅂ불규칙, ㄹ불규칙, ㅍ불규칙, ㅎ불규칙 유형에 해당하는 용언(동사4, 형용사2) 6개로 선정되었다.

검사어미는 최은숙(2005)의 연구에서 선정한 연결어미를 기반으로 하였고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포함시켰다. 검사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용언과의 결합 제약을 고려한 활용 형태상 어미분류에서 단일형 연결어미를 선정하였다. 국어의 어미 활용을 형태상으로 분류하면 ‘-(아/어)서’, ‘-(으)니까’, ‘-(으)면’, ‘-고’, ‘-(느)ㄴ다’, ‘-(아/어)라’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연구 대상자가 이미 습득한 각각 한 개의 어미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현재형어미인 ‘-(느)ㄴ다’와, 명령형어미인 ‘-(아/어)라’는 용언 중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 어미이다. 동사, 형용사를 포함한 용언의 활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 형용사와 결합되지 않는 어미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4개의 어미를 검사 연결어미로 선정하였다.

어미의 의미적 정확성이나 형태적 정확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연결어미에 집중되어 있고, 전성어미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느)ㄴ’도 검사 어미에 포함시켰다.

검사 용언과 어미, 활용의 자연스러움을 확보하기 위해 ‘-(아/어)서’, ‘-(으)니까’, ‘-(으)면’ 뒤에는 ‘좋다’의 유도구를, ‘-고’ 뒤에는 ‘있다’의 유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 있다’의 경우 형용사와 결합하면 어색한 표현으로 연구 대상자가 문장이 이상하다고 언어, 또는 제스처로 표현할 경우, ‘-고’로 바로 유도하였다. (‘얼음이 차고 있다’는 ‘얼음이 차고’로, ‘산이 높고 있다’는 ‘산이 높고’로, ‘강아지가 귀엽고 있다’는 ‘강아지가 귀엽고’로, ‘하늘이 파랗고 있다’는 ‘하늘이 파랗고’로). ‘-(느)ㄴ’ 뒤에는 ‘것이야’의 유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용언은 그림과 부합되는 주어나 목적어를 결합시킨 문장으로 유도한 후 어미 활용을 유도하였다.

2) 연구절차

(1) 예비실험

본 실험에 앞서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제시하는 그림카드의 상황이 모호하진 않은지 검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선 표집(random sampling)으로 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각 2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실험

① 선별검사

본 실험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로 REVT를 1:1 상황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성인 지적장애인과 1:1 매칭시켰을 때 성인 지적장애인의 REVT 수용언어 원점수 ± 3 점 이내로 언어 연령을 일치시켰다.

② 용언 활용 정확도 검사

본 검사는 아동의 경우 검사 대상자의 집의 조용한 방에서, 성인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조용한 방에서 1:1 상황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의 친밀감을 형성을 위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용언활용과제 그림을 보여주고, 용언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습과제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아동이 오반응을 보였을 때 정반응을 알려 주었으며, 연구 대상자가 과제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판단 되면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어)서', '-(으)니까', '-(으)면' 과제에서는 뒤에 '좋아'의 유도구를 사용 '-(아/어)서 좋아', '-(으)니까 좋아', '-(으)면 좋아'로, '-고' 과제에서는 '있다'의 유도구를 사용 '-고 있어'로 '-(느)ㄴ' 뒤에는 '것이야'의 유도구를 사용 '-(느)ㄴ 것이야'로 산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제가 보여주는 그림들에다 '(아/어)서 좋아'를 붙여서 말할 거예요. 여기 공을 던지는 그림이 있네요. 여기에 '(아/어)서 좋아'를 붙여서 말하면 '공을 던져서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 볼래요? 그림 이 그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으)니까 좋아', '-(으)면 좋아', '-고 있어' '-(느)ㄴ 것이야'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검사 중 연구 대상자의 용언활용을 모두 기록지에 전사하였다.

용언활용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언어병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언어치료학과에서 언어발달장애를 5년 이상 강의하고 있는 전공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용언유형별 또는 어미유형별 문항이 타당한가와 유도문장이 목표언어를 적절히 유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1점 매우 부적절, 2점 부적절, 3점 보통, 4점 적절, 5점 매우 적절한' 순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67점으로 평가되었다.

3. 결과분석

1) 용언 활용 분석

용언 활용 정확도에 대한 분석은 용언 활용 과제에 대한 정반응 분석과, 오반응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정반응 분석은 50가지 용언 활용 과제에 대해 맞게 반응한 수행점수(1점)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고, 오반응 분석은 틀리게 답한 내용에 대해 오류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언 활용 과제는 10개의 용언 각각에 5개의 연결어미를 결합하여 총 50문항(10용언×5연결어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용정확도의 점수는 정확한 답을 한 경우 1점 틀리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고 틀리게 답한 내용에 대해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 아동이 얻을 수 있는 용언 활용도 총점은 50점(10용언×5연결어미×1점)이다.

하나의 연결어미 총점은 10점(1연결어미×10용언×1점)이고, 총 5개의 연결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10개의 용언 중 4개의 규칙용언과 6개의 불규칙용언 각각에 5개의 연결어미를 결합하였다. 규칙 용언의 활용 정확도 점수는 총 20점(4용언×5연결어미×1점)이고, 불규칙 용언의 활용 정확도 점수는 총 30점(6용언×5연결어미×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오류유형의 분석

오류유형 분석은 용언 활용 과제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대답이 틀렸을 경우 0점, 틀린 대답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간 변형, 어미 변형, 매개모음 오류, 보조 용언 사용, 용언 대치, 과제 보속 현상,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그리고 기타로 오류 유형을 모두 8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로 집단과 용언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과 규칙성 여부, 집단(2)×용언의 규칙성 여부(2)의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적장애 집단, 동일한 언어연령의 일반아동 집단 간 용언 활용 정확도,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오류반응에 대한 분석은 집단 별로 연구 대상자들의 각 오류반응 유형에 따른 오류빈도를 산출하여 기술통계 및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비교로 처리하였다.

4. 평가자간 신뢰도

채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치료를 전공한 1명의 대학원생과 전체 자료의 20%에 대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일치된 용언 활용 항목수를 일치된 용언 활용 항목수와 불일치된 용언 활용 항목수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였다. 용언 활용 정확도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99.5 %이다.

III. 연구 결과

1. 전체 용언활용 정확도 수행력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의 용언 활용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용언 활용 정확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집단별 용언 활용 정확도 총점

집단	N	평균(개) (표준편차)	백분율(%)	t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5.90(12.574)	71.8	-2.586*
언어연령 일치집단	10	46.40(2.591)	92.8	

* $p < .05$

성인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정확도 총점 평균은 35.90,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정확도 총점 평균은 46.40으로 나타났다.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이 성인지적장애인보다 용언을 더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586, p = .028$)

2.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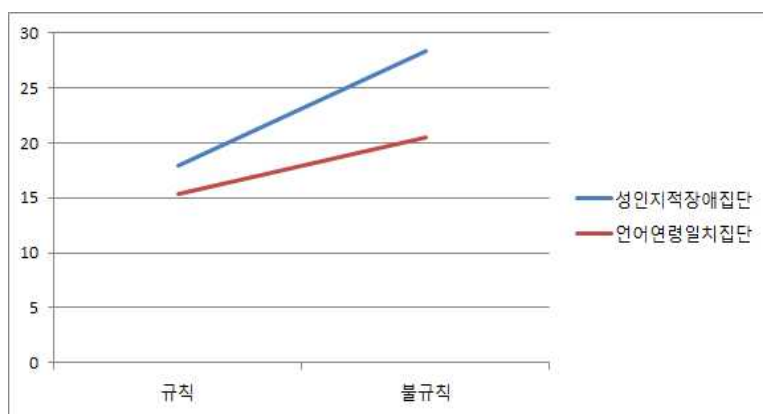
과제유형	집단	N	평균(개)	표준편차
규칙	성인지적장애집단	10	15.40	4.169
	언어연령 일치집단	10	18.00	1.563
불규칙	성인지적장애집단	10	20.50	8.618
	언어연령 일치집단	10	28.40	1.350

집단과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 결과 집단과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는 집단의 주 효과가 유의미 하였고 ($F(1,18)=6.689, p=.019$), 규칙성 여부의 주효과도 유의미 하였다($F(1,18)=88.872, p=.000$). 집단과 과제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18)=10.391, p=.005$). 집단별 과제유형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집단별 과제유형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275.625	1	275.625	6.689	.019*
오차	741.650	18	41.203		
규칙성 여부	600.625	1	600.625	88.872	.000*
규칙성 여부 × 집 단	70.225	1	70.225	10.391	.005*
오 차	121.650	18	6.758		

* $p < .05$



<그림 1> 집단×규칙성 여부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모두 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가 불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보다 높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규칙 용언의 활용 정확도보다 불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의 차이를 각각의 용언별로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용언 종류별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용언 종류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점수

	집단	N	평균 (개)	표준편차	t
자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4.80	.632	-1.00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5.00	.000	
뵈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50	1.716	-2.537*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70	.675	
차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80	.789	-.293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00	.667	
높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30	1.703	-1.429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00	1.247	
짓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40	1.578	-2.711*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40	1.265	

<표 5> 용언 종류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점수(계속)

	집단	N	평균 (개)	표준편차	t
걷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00	1.633	-3.042*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60	.699	
귀엽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3.10	1.912	-2.232*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40	.699	
자르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4.10	1.197	-1.47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70	.483	
색칠하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4.00	1.054	-3.00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80	.632	
파랗다	성인지적장애집단	10	2.90	2.079	-2.667*
	언어연령일치집단	10	4.60	.699	

*p <.05

용언의 종류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는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은 성인지적장애인보다 모든 유형의 용언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용언 규칙용언에서는 ‘넣다’(t=-2.537, p=.030)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다’(t=-1.000, p=.343), ‘차다’(t=-.293, p=.773), ‘높다’(t=-1.429, p=.170)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규칙 용언에서는 ‘짓다’(t=-2.711, p=.021), ‘걷다’(t=-3.042, p=.010), ‘귀엽다’(t=-2.232, p=.049), ‘색칠하다’(t=-3.000, p=.015), ‘파랗다’(t=-2.667, p=.024)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르다’(t=-1.470, p=.168)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미유형에 따른 용언활용 정확도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의 어미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어미별 용언활용 정확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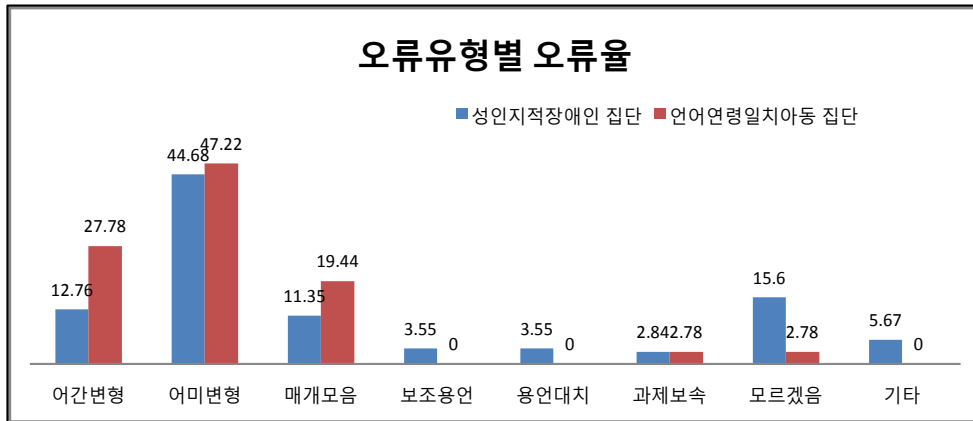
	집단	N	평균 (개)	표준편차	t
서	성인지적장애집단	10	7.50	3.689	-2.05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9.90	.316	
니까	성인지적장애집단	10	6.60	2.989	-2.53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9.30	1.567	
면	성인지적장애집단	10	6.30	4.029	-2.632*
	언어연령일치집단	10	9.70	.675	
고	성인지적장애집단	10	8.30	2.312	-1.541
	언어연령일치집단	10	9.50	.850	
는	성인지적장애집단	10	7.20	1.989	-1.100
	언어연령일치집단	10	8.00	1.155	

* $p < .05$

어미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는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이 성인지적장애인보다 다섯 가지 어미 모두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결어미 '니까'(t=-2.530, p=.024)와, '면'(t=-2.632, p=.026)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고', '서', '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는 성인지적장애 집단은 '고', '서', '는', '니까', '면' 순의 정확도를 보였고,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서', '면', '고', '니까', '는' 순의 정확도를 보였다.

4. 용언활용 오류 유형 분석

집단 간 활용 오류의 개수와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용언 활용 과제에 대한 아동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2> 오류유형에 따른 집단별 오류율

<그림-2>를 보면 성인지적장애 집단은 오류는 어미변형,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어간변형, 매개모음오류, 보조용언 사용과 용언 대치, 과제 보속 현상 순으로 높았고,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어미변형, 어간변형, 매개모음 오류 그리고 과제보속과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순으로 높았는데. 오류 유형별 빈도와 오류율의 순서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보조용언 사용과 용언대치, 그리고 기타 특별한 형태로 예를 들면 타어미결합, 품사변형, 어간,어미동시변형, 사동접사 결합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에서만 용언 활용 실수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정확도와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 활용 오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첫째, 두 집단의 용언활용 정확도 분석 결과, 먼저 용언활용 정확도 총점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35.90, 표준편차 12.574이고,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은 평균 46.40, 표준편차 2.591로, 용언 활용 정확도 총점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인지적장애인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용언 정확도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경도지적장애아동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세나, 2012) 이는 용언 활용 정확도의 의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용언 활용 정확도를

형태적 측면에서 보는 본 연구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어 직접적 비교는 힘들지만, 용언 활용 정확도의 의미관계 산출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용언 정확도의 형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봤을 때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의미적이든 형태적이든 용언 활용면에 있어서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용언 활용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일관성 있는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용언 활용에서의 어려움이 성인기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성인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용언 활용 정확도의 형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비교한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용언 활용 정확도가 생활연령일치아동 뿐만 아니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보다 더 낮았는데(김혜영, 2008) 본 연구에서도 성인지적장애인의 용언 활용 정확도가 떨어졌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나 성인지적장애인이 언어연령을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보다 용언 활용 정확도가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용언 활용 규칙을 습득해 가는 단계와 과정은 비슷하지만 습득한 이후에 간단한 규칙만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성인기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발달기에 있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성인 지적장애 모두에게 용언 활용의 정확도라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정확하게 용언을 활용해서 쓰는 것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증재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연령이 증가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성인기에서도 이어져 의사소통의 제한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아동이 용언 활용의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겪게 되므로 지적장애아동의 증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고, 이에 대한 학습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용언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에서는 성인지적장애 집단, 언어연령일치 아동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규칙성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고, 집단과 규칙성여부 간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보다 불규칙 용언 활용 정확도에서 상대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의 규칙 여부에 따른 용언 활용의 차이를 각각의 용언별로 살펴본 결과 규칙용언에서는 ‘넣다’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불규칙 용언에서는 ‘짓다’, ‘걷다’, ‘귀엽다’, ‘색칠하다’, ‘파랗다’에서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성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연구가 동일한 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힘들지만,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용언 활용 정확도를 연구한 김혜영(2008)의 연구를 보면 불규칙 용언에서 단순언어장애, 언어연령일치, 생활연령일치 세 집단 간의 차이는 규칙용언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보다 크며, 특히 단순언어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의 차이가 규칙 용언의 활용보다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인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 간 차이가 규칙 용언의 활용보다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를 포함한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어느 정도 습득도 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성인기에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들은 불규칙 용언 활용의 측면들을 중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하고 지적장애아동 중재에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어미에 따른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에서 연결어미 ‘니까’와, ‘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미별 용언 활용 정확도 점수는 성인지적장애 집단은 ‘고’, ‘서’, ‘는’, ‘니까’, ‘면’ 순의 정확도를 보였고,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서’, ‘면’, ‘고’, ‘니까’, ‘는’ 순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모든 불규칙 용언에 대해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연결어미 ‘서’의 용언 활용 정확도가 성인지적장애 집단에서는 두 번째로,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에서는 첫 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4-6세 일반아동 연구(최은숙, 2005)와 단순언어장애 아동 연구(김혜영, 2008)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서’에 비해서 불규칙 용언을 포함한 모든 용언에 대해서 기본 어간과 결합하는 간단한 활용 규칙을 갖고 있는 연결어미 ‘고’의 용언 활용 정확도가 일반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모두에서 실험 연결어미 중 가장 낮다(최은숙, 2005; 김혜영, 2008)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 집단에서는 첫 번째로, 언어연령일치 아동 집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결어미 ‘고’의 용언 활용정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최은숙(2005), 김혜영(2008)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최은숙(2005)은 ‘-고’ 과제에서 대부분의 실수가 매개모음 ‘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매개모음 실수가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는 불규칙 용언과 결합할 때 생겨난 것으로 보고 조음상의 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매개모음을 삽입하해서 ‘고’의 용언활용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김혜영(2008)은 아동들은 용언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할 때에는 용언의 어간을 바꾸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 용언의 어간을 불규칙 활용할 때의 어간으로 바꾸어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결어미

‘-고’의 오답을 살펴보면 성인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모두 기본 어간에 어미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기본형에 연결어미 ‘-고’를 결합시킨 어미 변형 오류가 대부분이고, 매개모음 오류는 두 집단 각각 1개씩으로 기존 두 연구에서 보이는 오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와 기존 두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어미발달, 구문발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은숙(2005), 김혜영(2008)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4-6세 아동으로 아직 어미발달, 구문발달이 완성되지 않고 발달 중에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매개모음의 실수가 많으며, 용언 활용시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인지 모르고 한 덩어리의 어휘로 외워서 사용하므로 규칙인데도 불규칙일 때의 어간으로 바꾸어서 생긴 오류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음 오류의 경우 성인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두 집단 모두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난 빈도 자체가 낮고, 규칙인데 불규칙 어간으로 바꾼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성인지적장애, 학령기의 일반아동으로 어미발달, 구문발달이 끝난 시기이다. 단순히 규칙성 여부뿐만이 아니라 의미관계에도 맞게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복문 산출이 가능한 시기로 기존 연구에서 발달과정의 아동이 보이는 실수들은 해결이 됐기 때문이다. 이때는 오히려 연결어미를 붙여야 하는 앞의 음운 환경에 따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규칙처리와 용언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불규칙 용언을 포함한 모든 용언에 대해서 기본 어간과 결합하는 간단한 활용 규칙을 갖고 있는 연결어미 ‘고’의 용언 활용 정확도가 성인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넷째, 성인지적장애 집단은 오류는 어미변형,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어간변형, 매개모음오류, 보조용언 사용과 용언 대치, 과제 보속 현상 순으로 높았고,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어미변형, 어간변형, 매개모음 오류 그리고 과제보속과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순으로 높았는데, 오류 유형별 빈도와 오류율의 순서에는 두 집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보조용언 사용과 용언대치 오류가 성인지적장애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

보조용언 사용 오류는 용언에 어미 결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보조용언을 넣어서 어미를 결합하는 경우이다. 김혜영의 연구에서 모든 집단에서 이 오류가 발생한 것은 세 집단의 아동들 모두 4, 5세로 특정 용언과 어미를 꼭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6세 이전으로 아직 안정화에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나이가 주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6세 이후로 제한을 두었는데도, 보조용언의 사용 오류가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인지적장애인에게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용언 활용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활용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용언 활용 정확도의 형태적 측면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학습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인지적장애인, 언어연령일치 비지적장애인 집단의 사례 수가 각각 10명 총 20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충분한 표본크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추후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어려움의 특성을 다양한 언어하위 영역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지적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도하·정분선 (1999). 2~5세 유아의 복문 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8(1), 157-173.
- 김귀숙 (2002). 3-5세 유아의 전성어미와 연결어미의 발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나 (2012). 학령기 경도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연결어미 산출 능력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02).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02). 정상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연결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08).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8).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미에 따른 용언 활용 특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섭, 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 서희선, 이승환 (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제4권, 1-19.
- 최은숙 (2005). 4-6세 아동의 용언 활용 발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 (2004). 3- 8세 아동의 내용어 어휘 발달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tolucci, G. Pierce, S. j. & Steiner, D. (1980). Cross-sectionsl studies of grammatical morphemes in autistic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0, 39-50.
- Cantwell, D., Baker, L.,& Rutter, M.(1987). A comparative study of infantile autism and specific developmental receptive language disorder:IV. Analysis of syntax and language func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351-362.
- Leonard, L. B.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MIT Press.

Owens, R. E(2002). *Mental retardation: Difference and delay*. In D. K. Bernstein & E. Tigerman-Faber(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pp.436-509). Boston: Allyn and bacon.

The Comparative Study of Verb Conjugation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eong, Seon Hee · Jung, Kyung Hee

Yongin University · Yong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curacy of conjugatio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ordinary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with a focus on morphological asp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20 persons including 10 adults with second to third degre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10 ordinary age matched children. For the research task, we performed test of accuracy in the production of predicates. The test of conjugation accuracy consisted of 10 predicates and 5 endings. The test measured the accuracy of combination between those predicates and ending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otal scores for accuracy of conjugation.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adult group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group in total scores for accuracy conjugation based on regularity of predicates. Moreover, a differe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two groups in regularity. Furthermo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based on group and regularity.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two groups in accuracy of irregular conjugation, compared to regular conjugation. Third, when we examined the accuracy conjugation by end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nection ending such as 'nikka (so)' and 'myeon (if)'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Fourth, no differe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adult group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group in terms of frequency by error type and order of error rates.

In conclusi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imply that guidance should be offered to cli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linguistic difficulty during intervention constantly with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rregular conjugation, considering that they still make mistakes in irregular conjugation even when they become adults, although they can learn the way to regular conjugation to some degree and can utilize regular conjugation accurately.

Key Words :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onjugation, ending, regularity, irregularity

논문 접수: 2017. 03. 05 심사 시작: 2017. 03. 10 게재 확정: 2017. 04. 17